

개정된 의료 용어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임 인 석

About the Reformed Medical Terms

In Seok L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Concerning our medical history, the importance of medical terms has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In addition, medical terminologies are unaccustomed to the patients including the public. The separation of communications between the public and medical participants has been enlarged more and more. The importance of terms which can be easily recognized, comfortable to the ear, and familiar to the public have arose to the point whe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established a medical terms enactment in 1976 and made the first series of medical terms. These efforts have been continued to the second in 1983, the third in 1992 and the fourth series in 2001. Throughout this revision, we wish new terms of fourth series may contribute to the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doctors and patients. It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 better and enhanced tool to the public who require medical information. The terms of present lecture are based on the fourth series of medical terms. Because it is irrational to use all the reformed terms, in this lecture we have used the most commonly used clinical terms as a hope for the pediatricians to give better medical treatment. (**Korean J Pediatr** 2004;47:716-718)

Key Words : Medical terms, Reform

서 론

우리 의료계는 구한말 이 땅에 현대 의학이 도입된 이래 계속되는 민족 수난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오직 의학과 의학의 발전에 매진해야 했던 상황 때문에 의학 지식을 담은 의학 용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상당수의 의학 용어가 외래어 또는 복잡한 한자어 상태로 사용되었고 이점 때문에 의학이 국민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었으며 국민과 의료인 사이 원활한 정보 전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의학 용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사이에서도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름답고, 알기 쉽고, 간편하며, 어감이 좋고, 보편성이 있는 우리말 의학 용어를 제정하고 또 심의 규정하여 의학 관계자 뿐

만 아니라 비전문 일반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널리 같이 쓰고 의 국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의학 개념과 용어를 제빨리 받아들여 우리말로 바꾸어 정착시키고 또 우리도 새로운 의학 개념과 의학 용어를 생산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열망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적된 문제도 많고 개선의 여지도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며, 대한 의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76년 의학용어 제정위를 구성, 1977년 의학 용어집 1집을 출간하였으며 이후에도 의학 용어 실무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면서 1983년에는 2집을, 1992년에는 3집을 발간하였고, 2001년에는 이제까지 발간되었던 제 1, 2, 3집을 바탕으로 의학 용어를 엄선하여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기울인 4집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된 의학 용어가 의료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적절히 활용되어 의학 교육과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 소통은 물론 국민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였다.

본 임상 강좌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 개정된 의학 용어들을 4집 의학 용어집에 근거하여 소개하였다. 개정된 의학 용어들을 전부 기술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기서는 비교적

접수 : 2004년 5월 22일, 승인 : 2004년 5월 24일

책임저자 : 임인석,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소아과

Correspondence : In Seok Lim, M.D.

Tel : 02/748-9896 Fax : 02/795-4698

E-mail : inseok@cau.ac.kr

임상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니 이를 참고로 일선 소아과 의사들의 진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순환기학(Cardiology)

Aneurysm : 동맥류 → 자루, 류, 동맥류
 Apoplexy : 졸중 → 뇌출혈, 중풍
 Cardiac tamponade : 심장압전, 심tam포나데 → 심장눌림증, 심장 tamponade기
 Coronary arteriovenous fistula : 관상동정맥루 → 심장동정맥셋길
 Dextrocardia : 우흉심 → 오른심장증
 Ectopia cordis : 이소심(장) → 판곳심장증
 Ectopic : 이소성 → 판곳의
 Fibrillation : 세동 → 잔떨림
 Flutter : 조동 → 된떨림
 Gallop : 분마음 → 말달림울동
 Sinus arrhythmia : 동성부정맥 → 굴심방 부정맥
 Trilocular heart : 삼강심 → 셋방심장
 Unilocular heart : 일강심 → 홀방심장

신경계학(Neurology)

Acephalia : 무뇌증 → 머리없음증
 Aphasia : 실어증 → 언어상실증
 Arachnoid : 지주막 → 거미막
 Corpus callosum : 뇌량 → 뇌들보
 Gyrus : 대뇌회 → 뇌이랑
 Lissencephaly : 무뇌회증 → 뇌이랑없음증
 Mental retardation : 정신지체 → 정신늦됨
 Mesencephalon : 중뇌 → 중간뇌
 Myelomeningocele : 척수류 → 척수막탈출증
 Myositis : 근염 → 근육염
 Occipital bone : 후두골 → 뒤통수뼈
 Placebo effect : 플라세보 효과, 가약효과 → 속임약효과, 무약효과
 Proencephalon : 전뇌 → 앞뇌
 Rhombencephalon : 능뇌 → 마름뇌
 Schizencephaly : 뇌열 → 뇌갈림증
 Spina bifida : 이분척추 → 척추갈림증

신생아학(Neonatology)

Brachial palsy : 상완신경마비 → 위팔신경마비
 Branchial cleft cyst : 새얼낭 → 아가미틈새낭
 Caput succedaneum : 산류 → 출산머리부종

Cephalohematoma : 두개혈종 → 머리혈종
 Cleft lip : 구순열 → 입술갈림증
 Cleft palate : 구개열 → 입천장갈림증
 Gastroschisis : 복벽개열증 → 배벽갈림증
 Meconium : 태변 → 배내똥
 Neonatal asphyxia : 신생아 가사 → 신생아 질식
 Omphalitis : 제염 → 배꼽염
 Omphalocele : 제대탈장 → 배꼽탈출
 Torticollis : 사경 → 기운목
 Weaning : 이유 → 젖땀

신장학(Nephrology)

Glomerulitis : 사구체염 → 토리염
 Glomerulonephritis : 사구체신염 → 토리콩팥염
 Interstitial : 간질 → 사이질
 Mineralocorticoid : 광질 코르티코이드 → 광질 부신겉질 호르몬

Nephron : 신원 → 콩팥단위
 Nephropathy : 신증 → 콩팥병증
 ex) Light chain nephropathy → 가벼운 사슬 콩팥병증
 Nephropoysis : 신화농증 → 고름콩팥증
 Nephrosclerosis : 신경화증 → 콩팥굳음증
 Pyelitis : 신우염 → 깔대기염
 Pyelonephritis : 신우신장염 → 깔대기 콩팥증
 Pyuria : 뇨뇨 → 고름뇨
 Tubule : 세관 → 가느란관
 ex) Proximal convoluted tubule → 토리쪽 곱슬세관

위장관학(Gastroenterology)

Acute appendicitis : 급성 충수염 → 막창자 꼬리염
 Cardia : 분문 → 들문
 Choledochal cyst : 총담관낭 → 온쓸개관낭
 Cholestasis : 담즙정체증 → 쓸개즙정체
 Colon : 결장 → 잘룩창자
 Congenital megacolon : 선천성 거대결장증 → 선천큰결장증
 Diaphragm : 횡경막 → 가로막
 Diverticulum : 게실 → 겹주머니
 Erosion : 미란 → 까집
 Gallstone : 담석 → 쓸개돌
 Gastroenteritis : 위장관염 → 위창자염
 Gastrostomy : 위루술 → 위창냄술
 Intussusception : 장중첩증 → 창자겹칩증
 Jejunum : 공장 → 빈창자
 Mesentery : 장간막 → 창자사이막

Pseudocyst : 가(성)낭 → 거짓낭
 Pseudolymphoma : 가성림프종 → 거짓림프종
 Pylorus : 유문 → 날문
 Stomatitis : 구내염 → 입안염

혈액종양학(Hematoncology)

Bone marrow : 골수 → 뼈속질
 Hereditary spherocytosis : 유전성 구상적혈구증 → 유전등근적혈구증
 Marrow : 골수 → 속질
 Megaloblastic anemia : 거대적아구성 빈혈 → 큰적혈 모세포 빈혈
 Metamyelocyte : 후골수세포 → 늦뼈속질세포
 Myeloblast : 골수모세포 → 뼈속질모세포
 Promyelocyte : 전골수세포 → 풋뼈속질세포
 Sick cell anemia : 겸상적혈구빈혈 → 낫적혈구빈혈
 Spherocytosis : 구형적혈구증 → 등근적혈구증
 Splenomegaly : 비장비대 → 지라비대

호흡기학(Pulmonology)

Abscess : 농양 → 고름집
 Alveolar : 폐포 → 파리
 Carbuncle : 융종 → 큰종기
 Emphysema : 폐기종 → 공기종
 Empyema : 농흉 → 가슴고름집
 Mediastinum : 종격동 → 세로칸
 Orthopnea : 기좌호흡 → 앉아숨쉬기
 Pneumococcus : 폐렴구균 → 폐렴알균
 Pneumonia : 폐렴 → 허파염
 Pneumothorax : 기흉 → 가슴공기증
 Pustule : 농포 → 고름물집
 Sinusitis : 부비동염 → 굴염
 Sphenoid sinus : 접형동 → 나비굴
 Streptococcus : 연쇄구균 → 사슬알균
 Tracheoscope : 기관경 → 기관보개
 Wheezing : 천명 → 쉼쉼거림

기타(Etc)

Abduction : 외전, 외향 → 벌림
 Abrasion : 찰과상 → 개관상처
 Ala nasi : 비익 → 콧방울
 Auricle : 이개 → 귓바퀴
 Goiter : 갑상선종 → 방패샘종

Hand-foot-mouth dis. : 수족구병 → 손발입병증
 Hypohidrosis : 무한증 → 땀없음증
 Inguinal : 서혜 → 살고랑, 살굴
 Mumps : 유행성이하선염 → 볼거리, 유행귀밑샘염
 Ophthalmoxerosis : 안구건조증 → 눈마름증
 Palpebra : 안검 → 눈꺼풀
 Patella : 슬개골 → 무릎뼈
 Scapula : 견갑골 → 어깨뼈
 Vesicle : 소포, 소포진 → 잔물집

결 론

요즈음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간 신문에서 건강 관련 지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진료 기록은 이제 의사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기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사가 다른 전문분야 사람과 의학에 관해 대화할 경우나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경우도 많아졌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는 신문의 의학 기사도 될수록 쉬운 우리말로 쓰는 경향이다. 이런 점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의학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불편한 용어를 새롭게 고치고 다듬는 쪽보다는 불편해도 익숙한 용어에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익숙해진 자기 분야의 용어는 이미 쓰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낯선 다른 분야의 용어는 쉽게 바꾸려는 경향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양의 의학 용어 역사는 2000년 이상이고 일본은 200년 이상 되지만 우리는 50년도 되지 않으며, 우리 의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말 의학 용어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말에는 그 민족의 창의력이 깃들어 있다. 그렇다면 의학 용어는 의사들이 만든 생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는 이 시대 우리의 의학 수준과 생각과 창의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용어를 쓰면서 우리 언어 체계에 맞게 더욱 다듬고 가꾸어서 의학 용어가 이 시대 우리 의학의 거울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임상 강좌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 개정된 의학 용어들을 4집 의학 용어집에 근거하여 소개하였다. 개정된 의학 용어들을 전부 기술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현대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전문화, 세분화 되어 최신 의학 지견 및 정보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으므로, 의학 용어의 개정은 종료될 수 없으며 새로운 용어의 제정과 기존 용어의 보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